

도이취: 그 작곡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곡가를 알려면, 오르간곡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곡도 알아야 하지요. 모짜르트의 오빠라 복이나 오케스트라곡을 알고 오르간곡을 연주하면, 그 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곡을 알고, 동시에 사람인 비그너의 오빠라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스트곡을 위해서는 피아니스트 같은 데러너도 필요하지요.

이윤옥: 선생님을 모짜르트와 리스트의 거장으로 소개할 때도 무방할지요?

도이취: 리스트와 모짜르트, 그리고 바흐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이라고 해도, 그 외에 여러 작곡가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있고 즐겨 연주를 합니다. 어느 한 작곡가에 국한된 오르가니스트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윤옥: 한국의 오르간을 사용하고 연구하는 오르가니스트들과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도이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눈, 연주할 수 있는 손과 발 그리고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행복이지요. 그 행복을 억지로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그 행복에 간주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일 가운데에서도 가까이 시간을 내주신 도이취 교수님, 인사를 내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의 있게 답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의 홈페이지에서 그가 연주한 음악과 에디션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h-deutsch.de